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노벨상 수상 연설문에 대한 역사·사회학적 해석

조구호(증산도사상연구소)*

- I. 연설문이 지닌 문학적 효용성
- II. 마술적 현실과 인간 탐욕의 결합
- III. 라틴 아메리카 고독의 본질
- IV.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 새롭고 완전한 유토피아의 창조

I. 연설문이 지닌 문학적 효용성

1982년 12월 8일,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노벨 문학상 수상 연설문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La soledad de América Latina”)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에서 비롯되는 ‘고독’, 즉 스페인의 식민 지배와 수탈, 서구 열강의 침탈, 미국의 지원을 받는 독재자들의 비이성적인 철권 통치, 이런 것들로 인한 정치불안, 부정부패, 빈부격차, 인권 유린 등 총체적인 삶의 고통을 겪어야 했던 라틴 아메리카가 지닌 ‘고독’의 문제를 은유적이고 웅변적인 어조로 전 세계에 설득함으로써 세계 지성계에 커다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원래의 라틴 아메리카라는 땅, 현실 자체가 지닌 다산성, 광기, 자유분방함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그 삶의 표현이라고

* Gu-Ho Cho (JeungSanDo Research Institute, Faculty of languages, minervo@hanmail.net), “Una interpretación socio-histórica sobre el discurso de aceptación del Premio Nóbel de Literatura por Gabriel García Márquez”.

할 수 있는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문학은 현실의 반영이며, 역사의 은유이기 때문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이 연설문에서 우선 라틴 아메리카가 소위 ‘마술적 사실주의’의 무대가 될 수 있는 지리적·자연적 특성, 즉,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것 같은 기묘묘한 자연물들이 각자의 존재 이유를 지닌 채 실제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영위하고 있는 세계임을 천명했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라틴 아메리카를 찾은 유럽인들의 눈에는 라틴 아메리카가 그 동안 자신들이 추구하던 ‘지상의 천국’으로 비침으로써, 유럽인들의 불로장생에 대한 전도된 욕망과 황금에 대한 탐욕이 잘 드러나 있는 상상의 땅 ‘엘도라도’가 위치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 자체가 향후 전개될 고독의 인자들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유럽인들의 탐욕과 환상이 식민화의 동인으로 작용한 라틴 아메리카는 온갖 신산을 겪으며 독립을 쟁취한 뒤, 독재자들의 어리석음과 광기가 그 어느 곳보다도 더 특이하게 드러나는 곳이 되었다는 사실을 독재자 연구의 대가답게 관련 에피소드까지 소개하면서 은유적으로 설파하고 있다. 이와 케를 같이 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 때문에 민중이 당한 엄청난 수난을 구체적인 숫자까지 거론하면서 고발하고 있다.

이어,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자기 삶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자신을 세계 최고 작가 반열에 올려놓은 콜롬비아, 더 나아가서는 라틴 아메리카라는 현실에 대해 얘기하면서 라틴 아메리카가 지닌 고독의 원인을 대내적인 것과 대외적인 것으로 대별해 놓고 있다. 즉, 이 땅에 내재된 고독한 특성이 라틴 아메리카를 고독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고독의 핵심은 타인(유럽인)들이 이기적인 시각으로 라틴 아메리카를 바라보고 자기 방식대로 재단하는 데서 비롯된다고 판단함으로써, 그 타인들이 자신들의 시각과 재단 방식을 스스로 바꾸기를 호소하고 있다. 라틴 아메리카의 존재 이유를 존중해 주고 이 지구상에 자기들과 함께 존재하는 대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라틴 아메리카가 독자성을 추구하고, 각자의 개

성을 존중하고 발현함으로써 새롭고 완전한 유토피아를 창조해 나가자고 강조하면서 연설을 끝맺고 있다.

대개, 정치적 구호나 수사, 또는 행사의 연설문 같은 언술은 청자에게 자신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그 시대와 현실을 비교적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써 본연의 목표를 추구한다.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에서 언급되고 있는 역사적 현실들은, 연설문이라는 장르적 특성을 상당히 수용하고 있다고 해도, 가르시아 마르케스 특유의 강력하고 효과적인 ‘빗대어 말하기’ 전략으로 포장되어 있어 그 지시 대상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썩 쉽지 않다. 이 연설문의 일차적인 목표는 ‘문학적’이지 않을지라도, 라틴 아메리카 현실과 고독의 문제를 특유의 비유와 논리로, 다시 말해, ‘문학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문학적일 수 있고, 이는, 어찌 보면, 가르시아 마르케스 자신의 의사를 청자들에게 그만큼 더 깊고 광범위하고, 다양하게 전달하기 위해 필요한 설정일 수도 있다. 따라서 ‘빗대어 말하기’와 ‘문학적인 보여주기’ 수법이 동원된, 이 연설문의 짧지만 함축적인 기표(significante) 속에 내재되어 있는 기의(significado)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본고는, 비교적 짧은 글이지만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기가 곤란한 이 연설문이 지닌 심층적 의미를 몇 가지 각도로, 특히 사회·역사학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라틴 아메리카가 지닌 현실과 고독의 문제를 살펴보겠다는 실용적인 측면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가 연설문의 의미를 해석·설명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순기능도 지니고 있겠지만, 시각이 가르시아 마르케스 적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지니고 있다는 점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바다. 어찌 되었든, 이런 작업을 통해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인지하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의 층위와 범위를 파악해 보고, 그의 세계관과 문학관까지도 자연스럽게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II. 마술적 현실과 인간 탐욕의 결합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라틴 아메리카는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무수히 존재하는 땅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경이롭게 보이기 때문에 이 현실을 믿게 만드는 문제가 가장 어렵다고 주장한다. ‘현실’을 완벽하게 묘사할 수 있는 언어가 존재하는가 하는 문제는 논외로 치고, 과연 라틴 아메리카의 현실이 어느 정도로 경이로운지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입을 통해 직접 살펴보자.

II.1. 현실과 상상의 문제

마젤란과 함께 세계 최초로 세계를 일주했던 피렌체 출신 항해가 안토니오 빠가페다는 남아메리카 지역을 여행하면서 엄정한 연대기를 썼는데, 그 연대기는 상상의 모험을 하고 쓴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배꼽이 등에 있는 돼지들을 보았고, 암컷이 수컷의 등 위에서 알을 품는, 다리 없는 새들을 보았다고 썼습니다. 또한 주둥이가 손가락 같고, 혀가 없는 펠리컨들도 보았다고 합니다. 머리와 귀는 노새에 몸은 낙타, 다리는 사슴처럼 생긴 데다 말처럼 울부짖는 괴상한 동물도 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빠따고니아에서 맨 처음 만난, 몸집 거대한 어느 원주민에게 거울을 갖다대자 흥분한 원주민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고 경악해 정신을 잃었다고 썼습니다(SAL).¹⁾

당시 빠가페다는 브라질에서 꼬리 없는 새들, 다리가 없기 때문에 둥지를 만들지 못해 바다 한가운데서 암컷이 수컷의 등에 알을 낳아 부화시키는 새들, 자기와 동종인 새들이 싸 놓은 똥만 먹고사는 새들도 보았다. 빠가페다가 직접 본 것들을 제외하고도, 당시에 떠돌던 얘기에 따르면, 여자 같은 유방을 지닌 고래, 페니스가 둘 달린 상어, 날아다니는 물고기, 모래알보다 진주가 더 많은 해변들도 있었다고 한다. 이렇듯 초기 연대기 작가들에게 중남미 현실은 상상 너머에

1) 연설문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제목을 ‘La Soledad de Amércia Latina’의 약자 ‘SAL’ 표기하고, 인용문의 성격상 원전의 페이지는 밝히지 않겠다.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물론, 라틴 아메리카는 콜롬부스 방문 이전의 원시적 믿음과 마술적 개념들을 이루는 독창적인 요소들에 외부의 다양하고 풍부한 문화가 마술적으로 혼합됨으로써 소진되지 않는 예술적 다산성을 지니게 되었고, 아프리카 문화의 영향도 다행스러운 형태로 혼합되었다. 이처럼 다양한 세계의 혼합을 통해 무한한 자유 의식이 고취되고, 마술 같은 현실이 조성되었는데, 그 현실은 그 어떤 종류의 제한도 없이 각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가능한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경이로움’은 콜롬부스의 신대륙 방문 이후 라틴 아메리카를 탐험했던 사람들의 사회·심리적 욕망과 온갖 오류에 기반한 상상적 현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엄정해야 할 연대기에 ‘엄정한’이라는 수식어까지 첨가해 기술해 놓은 연대기에 나온 ‘사실’이라는 점이 시사하는 바 크다.

특히, 넓은 의미의 ‘카리브 지역’은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현실이 집약된 곳으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유난히 카리브에 매혹되어 있었다. 카리브 연안에 위치한 아라까따까 출신이라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카리브 자체가 믿을 수 없는 것들의 중심지이기 때문일 것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직접 경험한 에피소드를 통해 그 실상을 들여다보도록 하자. 『백년의 고독』에 등장하는 ‘돼지꼬리’ 후기에 한국 소녀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 흥미롭다.

나는 카리브에서 태어났다. 카리브 방방곡곡, 각 도시를 다 가 보았는데, 아마도 그로 인해, 현실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이 내게 결코 일어나지도 않았고, 내 스스로 만들어 낼 수도 없다는 절망감이 오지 않나 싶다. 내가 가장 멀리 이를 수 있었던 것은 그 현실을 시적 수단을 동원해 변형시키는 것이었으나, 내 책에 씌어진 것들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되지 않는 것은 단 한 줄도 없다. 그런 시적 변형들 가운데 하나는 『백년의 고독』에 등장하는 부엔디아 가족을 그토록 불안하게 만든 돼지꼬리의 출현이다. 나는 돼지꼬리를 제외한 다른 이미지라면 무엇이든 찾아볼 수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들 하나가 돼지 꼬리를 달고 태어날 것이라는 공포는 현실과 일치할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하

자마자 아메리카 각지에서 돼지꼬리 비슷한 것이 달린 남녀들의 고백이 행해졌다. 청년 하나가 바랑끼야 지역 신문들에 실렸는데, 그는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났으나 『백년의 고독』을 읽을 때까지는 그 누구에게도 그 사실을 발설하지 않았다. 그의 설명은 그가 달고 있는 돼지꼬리보다 더 놀랄 만한 것이었다. “제게 돼지꼬리가 달렸다는 사실이 부끄러웠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사실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그 소설을 읽고, 사람들이 그 소설을 읽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돼지꼬리를 달고 있다는 사실이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점을 깨달았어요.” 그로부터 불과 얼마 뒤, 내 독자 한 사람이 한국 서울에 사는 어느 소녀의 사진을 오려 내게 보냈는데, 소녀가 돼지꼬리를 달고 태어났다는 것이다. 내가 소설을 쓰기 시작했을 때 생각하고 있던 것과는 달리, 서울 소녀는 꼬리 제거 수술을 받고 생존했다(FCAALC).²⁾

이처럼, 카리브적 현실은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경험한 것 가운데 가장 놀랄 만한 것이었고, 그 스스로 그런 현실을 만들어 낼 수 없다는 절망감까지 느낄 정도였다. 그가 작품 속에 소개하는 것들은 모두 실제로 일어난 사건에서 비롯되었고,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것들조차도 시적 수단을 동원해 변형시킨 엄연한 현실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카리브의 현실에 매료된 이유다.

최근에 펴낸 자서전 『얘기하기 위해 사노라』(Vivir para contarla)에는 카리브에 위치한 섬나라 아이티에 매혹당한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잘 드러나 있다.

신년 초 뿌에르토 뻬린시빠로 출장을 가야 하는 알바로 무피스가 나더러 함께 가자고 청했다. 당시 아이티는, 내가 알레호 까르벤티에르의 『이 세상의 왕국』을 읽은 뒤부터 나의 이상향이 되어 있었다. (중략)
《당신이 그곳에 가 보면—기예르모가 알바로에게 말했다.—그 곳이 바로 가보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거요.》 기예르모는 그 날 오후, 위대한 투우사의 정곡을 찌르는 칼 같은 언사로 그 문제에 중지부를 찍었다.

2) *Fantasia y creación artístic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구두로 발표한 아티클이다. 텍스트를 인용할 경우, 제목을 약자 'FCAALC'로 표기하고, 인용문의 성격상 원전의 페이지는 밝히지 않겠다.

“만약 가보가 아이티에 가게 되면 절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요.”(2002, 512-513)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다른 지면을 통해 자마이카에서 보이는 오후 세 시의 카리브해의 노란색을 가장 좋아한다고 고백했다. 카리브에는 노란 머리에 검은 피부, 초록색 눈을 지닌 여자들이 산다는 사실 때문에 강렬한 삶의 의욕을 느낀다고 실토했기도 했다. 카리브는 그의 문학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결정적이고 핵심적인, ‘행복한’ 현실인 셈이다.

우리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작가들은 현실이 우리 작가보다 더 좋은 작가라는 사실을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의 운명은, 아마도 우리의 영광은, 가능한한 최선을 다해, 겸손하게 현실을 모사하려 노력하는 것이다(FCAALC).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 지역에서는 예술가들이 현실을 많이 발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문제는 그 반대일 것이다. 즉, 엄연히 존재하는 자신들의 현실을 타인들로 하여금 믿게 만드는 것이다. 어찌 보면, 상상력이라는 것도 예술가들이 자신들이 사는 현실을 바탕으로 새로운 현실을 창조해 내는 특별한 능력이며, 그렇게 창조된 현실만이 유용하다고 생각되는 유일한 예술적 창조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II.2. 전도된 유토피아 : 불노장생 욕망과 황금 욕망

결핍과 욕구불만으로 점철된 중세를 거치며 새로운 것을 모색하던 유럽인들에게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것들을 지닌 라틴 아메리카 세계는 갖가지 추측과 환상을 불러일으켰으며, 유럽인들의 인간적 욕망을 충족시킬 만한 대상이 되었다.

인류가 그토록 탐욕스럽게 찾으려 했던, 우리의 환상의 땅 엘 도라도는 지도학자들의 상상에서 따라 장소와 형태를 달리하면서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지도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신화적인 탐험가 알바르 누네스 까베사 데 바카는 영원한 젊음의 샘을 찾아 8년간 멕시코 북부 지역을 탐험했는데, 그 기만적이고 무모한 탐험에서 대원들은 서로를 잡아먹었고, 결국, 탐험을 시작했던 600명 가운데 살아 돌아온 사람은 다섯 뿐이었습니다. 결코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미스터리들 가운데, 아파우알빠의 몸값을 지불하기 위해 등에 각각 금 100리브라 씩 싣고 어느 날 꾸스꼬를 떠난 노새 11,000 마리가 단 하나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 후 식민 시대에, 콜롬비아 까르파헤나에서는 퇴적사토(堆積砂土) 지역에서 키운 암탉 몇 마리가 팔리곤 했는데, 모이주머니에는 황금 알갱이들이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황금에 대한 우리 조상들의 망상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를 따라다녔습니다. 지난 세기만 해도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파나마 지협 철도 건설 연구 책임을 맡은 독일 사절단은 레일을 그 지역에서 귀한 철이 아니라 흔한 금으로 만든다면 그 계획은 타당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SAL).

‘엘 도라도’에 관한 전설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에서 틀림없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특이하고, 가장 결정적일 것이다. 이 환상적인 땅을 찾아 곤살로 히메네스 데 께사다(Gonzalo Jiménez de Quesada)가 오늘날 콜롬비아 영토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정복했고, 프란시스코 데 오레야나(Francisco de Orellana)는 아마존 강을 발견했다. 인간의 환상과 탐욕이 절묘하게 결합되어 있는 ‘엘 도라도’에 관한 전설과 그에 얽힌 기묘한 사연들을 간략하게 살펴보자. 각기 다른 문헌들에 다양한 방법으로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헌들에 관한 개별적인 소개는 생략하겠다.

침차족은 1년에 한 번씩³⁾ 추장의 몸에 금가루를 바르고, 뗏목에 황금 보물을 싣고, 자신들이 섬기는 구아파비따 호수 속의 신을 찾아 호수 한 가운데로 가서는 보물을 물 속에 던지고, 호수 물로 추장의 몸에 발랐던 금가루를 씻어내는 풍습을 지니고 있었다고 한다. 16세기 페루와 멕시코를 정복한 스페인 사람들은 이 신비스런 이야기를 듣고 이 추장을 ‘엘 도라도(El dorado)’, 즉 ‘금가루를 칠한 사람

3) 어떤 문헌에는 ‘여러 번’이라고 써어 있다. 여기 자체가 ‘전설(leyenda)’라는 점을 상기하자.

(황금인간)'이라 불렀는데, 이야기가 와전되어 엘 도라도는 '황금의 도시', '황금의 땅'으로 변해 버렸다.

어찌 되었든, 전설에 매혹된 히메네스 데 케사다는 1536년 엘 도라도를 찾아 말 85필에 군인 500명, 사제 여럿을 이끌고 보고따 고원의 칩차 족 마을에 도착했다. 히메네스 데 케사다와 일행은 마을을 약탈하고 원주민들을 고문함으로써 이 신비로운 풍습에 관한 전설과 구아따비따 호수의 실제 위치를 알아냈지만, 해발 2,700미터에 위치한 구아따비따 호수에는 원주민들의 촌락만 있을 뿐 황금인간은 자취를 찾을 수 없었다. 히메네스 데 케사다는 결국 꿈을 접어야 했다. 그 뒤 보고따 출신 세벨베다를 비롯해 구아따비따 호수에서 보물을 건지려 했던 사람은 많았지만, 그 뜻을 이룬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

인간의 탐욕이 빚어낸 환상의 제국 엘 도라도는 여전히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아 있지만, 현지 원주민들이 가진 부(富)는 영원히 고갈되지 않은 풍요가 보장되는 이상향(유토피아)을 찾고자 혈안이 되어 있던 유럽에 엘 도라도에 관한 환상을 퍼뜨렸고, 콜롬비아 해안은 수많은 원정대의 목표물이 되었으며, 결국 이 거대한 땅은 스페인에 정복되고 말았던 것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연설문에서 밝힌 바대로, 알바르 누네스 까베사 데 바카(Alvar Núñez Cabeza de Vaca)는 엘 도라도와 유사한 가치를 지닌 '영원한 젊음의 샘'을 찾아 뻬필로 데 나르바에스와 더불어 1527년 플로리다로 갔고, 그 뒤 미시시피강 유역과, 멕시코 북부 지역까지 탐험하지만 원하던 것을 찾아내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베사 데 바카가 지녔던 동기는, 엘 도라도를 발견하겠다는 것보다 더 고상하고 시적인 것이었을 수도 있다. 그가 추구했던 것은 황금이 아니라 영원한 젊음을 주는 샘물이었으니까.

잘려 나간 말의 목을 제자리에 붙일 수 있는 연고들이 있다고 씌어진 소설들에 빠진 곤살로 뻬사로(Gonzalo Pizarro)는 16세기에 끼또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황금 가구들을 만드는 장인 3,000명이 있는 왕국 하나가 있는데, 왕국의 궁에는 순금 계단이 있고, 황금 사슬을 매단 사자들이 궁을 지키고 있다는 말을 듣고는 그대로 믿어 버렸

다. 안데스 지역에 사자가 있었을 리 만무하지만, 아무튼, 그는 믿기지 않은 왕국 하나를 찾기 위해 스페인 사람 300명, 인디오 4,000명에 말 150필, 1,000 마리가 넘는 사냥개들을 동원했으나 결국 특별한 것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황금에 눈먼 프란시스코 피사로(Francisco Pizarro)에 의해 죽임을 당한 아따우알빠(Atahualpa)의 얘기는 또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페루의 마지막 황제로, 우아이나 까빱의 아들이자 우아스까르의 이복형인 아따우알빠는 1525년부터 이복 동생과 제국을 분리해 잉카 제국 북부를 다스렸으나 제국을 분배한 아버지의 결정에 반발해 결국 이복 동생과 그의 가족을 잔혹하게 살해했다. 잉카 제국에 도착한 피사로는 이런 분열상을 이용해 우아스까르를 체포했다. 포로가 된 아따우알빠는 피사로에게 자기를 풀어 주는 대가로 커다란 방에 사람 키만큼 채울 수 있는 막대한 양의 황금을 주겠다고 했다. 그러나 일반 황금을 포함해 뛰어난 장인들의 손을 거친 온갖 황금 세공품들이 약속된 장소에 도착하자 정복자들은 운반하기 좋게 모두 녹여버렸다. 잉카 인들의 손에 의해 탄생된 위대한 황금 문화 유산들이 한갓 ‘금덩이’로 전락하는 순간이었다. 피사로는 아따우알빠를 풀어주겠다고 약속을 지키기는커녕 아따우알빠를 죽인 뒤 황금을 반출했으나 그 황금이 목적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1536년 더 많은 황금을 찾아 라 빨라따 강까지 간 페드로 데 멘도사(Pedro de Mendoza)와 탐험대원들은 결국 식량이 떨어지자 자신들의 장화 밑창까지 게걸스럽게 먹어치웠고, 인육까지 먹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결국 멘도사는 매독에 걸려 죽고, 그의 시체는 강물에 던져졌다.

황금이건 신비로운 물이건, 이들이 찾고자 했던 것들은 인간의 탐욕을 실험하고, 탐욕을 부린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알려 주기 위해 신이 우리에게 내린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될 정도다.

이처럼 유럽에서 신화나 전설을 통해 상상된 유토피아, 즉, 툴레(Tule), ‘아틀란티다(Atlantida)’, ‘엘 도라도’, ‘영원한 젊음의 샘’은 어렵지만 실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설명하듯, 유

토피아에 대한 정복자들의 오도된, 하지만, 강렬한 믿음은 중세의 형이상학적 열기와 기사도 소설 속에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망상을 이해한 뒤에야 비로소 이해되는 문제일 것이다. 이에 관해 까를로스 푸엔테스는 다음과 같이 보충하고 있다.

르네상스 시대 사람들은 이런 질문들을 던졌다. 인간 사회는 어떻게 만들어져야만 하는가? 신의 계획과 인간의 계획이 조화롭게 만나는 장소는 존재하는가? 『유토피아』(Utopia)의 저자 토머스 모어는, 그의 책 제목이 말하듯, 그런 장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유-토포스(U-topos)’라는 말은 원래 ‘어느 곳에도 없다(nowhere)’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유럽인들의 상상력은 즉각 이에 대해 그런 장소는 현존하며, 그곳이 바로 아메리카라고 대답했다.

멕시코의 역사가 에드문도 오고르만에 따르면, 아메리카는 발견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아메리카는 유럽인들의 상상력과 회구에 따라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던 것이다. 당시 르네상스 유럽을 위해서 회복된 황금시대,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라 살아가는 그 행복한 장소가 반드시 존재해야만 했다(1997, 151).

인간에게 무한한 행복을 보장해 주는 ‘완전한 세계’인 ‘유토피아’에 대한 관념과 향후 전개될 ‘고독’이라는 관념은 쉽사리 양립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유토피아라는 것이 중세의 형이상학적 열기와 기사도 소설 속에 문학적으로 형상화된 망상으로 빚어진 것이라면 이 두 가지 존재의 양립 가능성이 살아나게 된다. 그 고독이 심화되는 배경을 좀 더 살펴보자.

III. 라틴 아메리카 고독의 본질

라틴 아메리카가 지닌 고독의 문제가 세계적인 반향을 불러일으키게 된 동기는 뭐니뭐니해도 가르시아 마르케스 자신의 『백년의 고독』의 힘이 크다 할 것이다. 『백년의 고독』에서는 고독이라는 문제가 문학적 형상화 내지는 ‘시적 변형’ 과정을 거쳐 드러나 있는데 반

해, 본 연설문에서는 그 원인과 현실, 그리고 고독을 이겨내기 위한 처방이 비교적 직접적인 방법으로 제시되어 있다. 몇 가지로 나누어 분석해 보도록 하자.

Ⅲ.1. 독재자들의 어리석음과 광기

라틴 아메리카의 존재 이유를 전적으로 무시한 채 시행된 스페인의 지배가 종말을 고한 뒤, 어리석음과 광기로 무장한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 비열하고 부자연스럽고 처절하기까지 한 투쟁을 통해 스페인 지배의 공백을 더욱더 악랄한 수법을 동원해 채우게 되며,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은 심화된다.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고발문을 읽어보도록 하자.

스페인 지배로부터의 해방은 우리를 광기에서 해방시키지 못했습니다. 멕시코에서 세 번에 걸쳐 독재를 자행했던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 파나 장군은 소위 ‘파이 전쟁’에서 잘려 나간 오른 다리를 웅대한 장례식을 치러가며 매장했습니다. 가브리엘 가르시아 모레노 장군은 16년 동안 절대군주처럼 에쿠아도르를 통치했는데, 그가 죽자 시체는 정복이 입혀지고 훈장들을 흉갑처럼 매단 채 대통령 의자에 안치되었습니다. 농민 30,000명을 잔인하게 학살한 엘 살바도르의 집신론자 폭군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마르띠네스 장군은 자기 음식에 독이 들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자처럼 생긴 도구를 고안해 내고, 성홍열을 퇴치시키기 위해 가로등을 빨간 종으로 감싸도록 했습니다. 페구시갈빠 중앙광장에 세워진 프란시스코 모라산 장군의 동상은 실제로 파리의 중고 조각품 창고에서 구입한 네이 제독의 것입니다(SAL).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죽장의 가을』은 1970년대에 독재자에 관해 씌어진 몇 안 되는 작품 가운데 하나다. 그는 이 작품을 통해 멕시코의 포르피리오 디아스(Porfirio Diaz: 1876, 1877~1880, 1884~1891 재임), 베네수엘라의 시프리아노 까스트로(Cifriano Castro: 1899~1908 재임), 구아테말라의 마누엘 에스뜨라다(Manuel Estrada: 1898~1920 재임), 후안 비센테 고메스(Juan Vicente Gómez: 1908~1915, 1922~1929, 1931~1935 재임), 엘 살바도르의 막시밀리아노 에르난데스

(Maximiliano Hernández: 1931 ~ 1934, 1935 ~ 1944 재임), 도미니카의 라파엘 레오니다스 트루히요(Rafael Leónidas Trujillo: 1930 ~ 1961 재임), 니카라구아의 아나스타시오 소모사 가르시아(Anastasio Somoza García: 1937 ~ 1947, 1950 ~ 1956 재임), 아이티의 프랑소아 뒤발리에(François Duvalier: 1957 ~ 1971 재임) 등의 독재자들을 패러디하고 있다. 연설문에 나타난 인물들을 비롯해 독특한 독재자 몇의 폭력적 정치와 기행에 관해 살펴보자. 하지만, 이는 역사적 사실로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이기에 이에 대한 개인적·정치적 평가는 유보하겠다.

라틴 아메리카의 최고참 독재자는 아마도 로페 데 아기레(Lope de Aguirre)가 될 것이다. 그는 페루를 정복한 사람으로, 잔인하기 이를 데 없는 폭군이였다. 1560년 크리스마스 때부터 탐험을 시작한 그는 대원들 가운데 힘든 탐험을 견디지 못하고 탈출을 기도하는 자가 생기자 이들을 가차없이 처단해버렸다. 굶주림과 열병으로 마지막 남은 대원들마저 하나씩 죽어갔다. ‘신의 분노’라는 별명을 얻은 로페 데 아기레는 자신의 딸과 결혼해 엘 도라도의 영원한 황제가 될 꿈을 꾸면서 광란에 빠져, 결국 부하들에게 피살되었다.⁴⁾ 그가 어쩌나 잔인했는지 며칠 동안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던 그의 잘린 팔을 본 사람들은 살인을 일삼던 그 팔이 여전히 칼을 휘둘러 수 있을 것이라는 공포심을 느끼며 치를 떨었다고 한다. 로페 데 아기레의 저주 받은 광기는 아돌프 히틀러의 그것에 비유되기도 하는데, 히틀러처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배반, 파괴, 공격을 일삼음으로써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는 인간의 치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놓았기 때문이다.

1814년 5년 임기의 정부 수반으로 지명된 파라구아이의 호세 가스

4) 사제 까스파르 데 까라발은 일기 형식의 페루 탐험기 ‘아기레, 신의 분노’를 쓴다. ‘엘 도라도’를 찾아가는 정복자들의 이야기다. 이 책을 본 독일 출신 영화감독 베르너 헤르초크가 영화 ‘아기레, 신의 분노’의 시나리오를 쓰고 연출했다. 영화 속 아기레는 외친다. “나는 신의 분노다. 멕시코를 꼬르메스로부터 되찾고, 우리는 역사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내 딸과 결혼해 함께 순수한 왕국을 건설해 나갈 것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대륙을 지배할 것이다. 우리는 참고 견뎌 나갈 것이다. 나 말고 다른 누가 있겠는가. 나는 신의 분노다.” 헤어초크는 아기레를 통해 인간의 끊임없는 권력욕, 이리석음을 통렬히 풍자하고 있다. 신의 저주를 받은 정복자를 자처하는 아기레 역을 맡은 클라우스 키스키의 연기가 일품이다.

빠르 로드리게스 데 프란시아(José Gaspar Rodríguez de Francia)는 정부의 통제를 강화하면서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국가방위에 주력했다. 또 금과 은화의 수출을 금지하고, 수입관세를 인상시키고, 브라질과의 교역항을 제한하고, 목재를 정부 독점으로 수출했다. 통신로를 개설하면서 종교재판도 폐지했다. 하지만, 1816년 6월 영구집정자(Dictador Perpetuo)로 지명된 뒤 압제적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별한 종교 축제 행사를 제외하고는 공중집회를 금지하고 관리들의 부정을 엄격히 처벌하면서 정부예산도 강력히 통제했다. 공공교육을 강화하면서 수도원 제도를 폐지하고 그 자산을 징발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통치방식에 반대하는 인사들을 투옥, 사형, 추방시켰다. 외국인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불법입국 시 출국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파라과아이 공화국이 어느 가정집이나 된다는 듯 쇄국정책을 단행했다. 그의 잔인성과 추방정책은 파라과아이 정치문화 발전을 저해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기도 했다. 까를로스 푸엔떼스는 “‘최고 권력자(El Supremo)’⁵⁾라고 자임했던 그가 요새국가 파라과아이와 외국 사이의 무역이나 여행, 심지어는 우편마저도 금지시켰다.”(1997, 328)며 비꼬고 있다.

1828년부터 1832년까지 온두라스의 대통령을 지낸 프란시스코 모라산(Francisco Morazán)의 상이 떼구시갈빠에 세워졌는데, 실제로는 네이 제독의 상이었다. 상을 찾기 위해 런던에 파견된 사절단이 어느 창고에서 가장 싼, 그 잊혀진 상을 사기로 결정해 모라산의 것으로 둔갑시켰던 것이다.

멕시코의 안토니오 로페스 데 산타나(Antonio López de Santana)는 1838년 프랑스와 벌인 ‘파이전쟁(La Guerra de Los Pasteles)’⁶⁾에서 다리 하나를 잃었다. 그는 절단된 다리를 대주교의 축복 속에 멕시코 시티 대성당에 장엄하게 안치했다. 그 다리는 로페 데 산타나가 실각할 때마다 분노한 폭도들이 끄집어냄으로써 거리를 굴러다녔고,

5) 아우구스토 로아 바스포스의 소설 *Yo, el supremo*는 바로 최고 권력자 호세 가스파르 로드리게스 데 프란시아를 소재로 한 것이다.

6) 멕시코 시티에서 일어난 폭동으로, 빵가게를 약탈당한 한 프랑스인의 청원을 들어주기 위해 프랑스 군함이 베라크루스 항을 포격한 사건을 말한다.

권력을 다시 잡을 때면 예전과 같이 장엄한 의식을 치러 축복을 받으며 다시 안치되곤 했다.

1908년 12월, 베네수엘라의 시프리아노 까스뜨로가 신병 치료차 유럽을 방문하려 했을 때, 의회는 그의 대통령직을 정지시키면서 부통령 후안 비센테 고메스의 정권 승계를 결의했다. 그러자 까스뜨로는 계엄령을 선포하고, 1910년에는 의회에서 헌정 대통령으로 추대되었다. 집권 후 1914년 개정된 헌법을 통해 군 통수권을 완전히 장악한 뒤 1935년 사망할 때까지 수도 없이 헌법을 개정해 가며 20년 넘게 베네수엘라를 통치했다. 특히, 재임 중 군부, 경찰 및 비밀 기관을 동원해 어떠한 정치적 집단이나 대중 조직의 결성도 허용하지 않고, 저항하는 인사들을 모두 투옥하고 무자비한 고문을 자행하는 등 독재적인 방법을 통해 정국 안정을 도모했다. 유년 시절 아라까따카 외갓집에 살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그토록 무서워했던 괴짜 의사 알프레도 바르보사도 비센테 고메스의 폭압적인 독재를 피해 라 구아히라 접경 지대를 통해 콜롬비아로 탈출하는 데 성공한 무수한 베네수엘라 출신 사람들 가운데 하나였다(2002, 37).

아나스파시오 소모사 가르시아는 니카라구아의 마지막 독재자의 아버지로, 자기 집 정원에 두 칸으로 이루어진 동물원을 만들어 한 칸에는 맹수를, 철망으로 엉성하게 분리해 놓은 다른 칸에는 정적들을 가둬 두었다.

1957년 9월 아이티 대통령으로 선출된 프랑소아 뒤발리에(‘파과독’이라고도 함)는 의회를 해산, 1964년 6월에는 종신대통령이 되어 공포정치를 실시했다. 1971년 그가 죽자 ‘베이비 독’이라 불리는 장클로드 뒤발리에가 19세에 대통령직을 세습해 1당 독재와 탄압정책으로 종신집권체제를 다져 강권정치를 행함으로써 극심한 빈곤과 부패가 만연되어 반정부 세력이 확대되었다. 1985년 이후로 민중소요가 그치지 않아, 1986년 2월 결국 뒤발리에가 망명함으로써 2대에 걸친 독재통치가 종식되었다. 프랑소아 뒤발리에의 나라에서 검은 개들을 모두 죽이기까지 했다. 정적들 가운데 하나가 독재를 피하기 위해 슬그머니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검은 개로 변했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죽장의 가을』을 쓸 준비를 하면서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에 관해, 특히 카리브 지역의 독재자들에 관해, 손에 잡히는 것이라면 뭐든지 다 읽었다. 쓰려고 구상 중이던 작품이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사람들, 가장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일들을 꾸미고 실현시킨 사람들이 바로 라틴 아메리카의 독재자들이었던 것이다.

III.2. 정치적 폭력과 민중의 수난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인 과거와 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이성과 합리가 통하는 자율적인 사회를 건설하려는 노력들은 번번이 저항에 부딪쳤고, 그 결과 조국과 민족의 현실과 미래를 위해 투신한 정치 지도자들과 순수한 열정을 지닌 민중의 고통과 수난이 뒤따르게 된다.

우리는 한 순간도 마음 편히 지낸 적이 없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대통령궁에서 버티던, 프로메테우스 같은 대통령은 혼자 군대 전체와 싸우다 숨을 거두었고, 수상하기 짝이 없지만 아직도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두 번의 비행기 사고는 위대한 마음을 지닌 또 다른 지도자의 목숨과, 자기 민중의 존엄성을 복구시켰던 민주적인 군인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이 시기에 다섯 번의 전쟁과 열일곱 번의 쿠데타가 일어났고,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 시대 처음으로 하느님의 이름을 걸고 민족을 말살시키고 있는 악마 같은 독재자도 출현했습니다. 그 동안 2천만 명의 라틴 아메리카 어린이들이 채 두 살이 되기도 전에 죽었습니다. 이는 1970년 이후 유럽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의 수를 상회하는 것입니다. 정치 탄압으로 실종된 사람은 12만 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는 스웨덴 옘살라의 모든 시민이 실종된 것과 같습니다. 임신한 채 체포되어 아르헨티나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던 수많은 여인들은 군부에 의해 비밀리에 입양되었거나 어느 고아원에 수용되었을 자기 아이들의 행방도, 얼굴도 모릅니다. 이런 일이 계속해서 일어나지 않기를 소망하던 20만 명에 가까운 남 녀가 라틴 아메리카 전 대륙에서 죽었고, 10만 명 이상이 중미에 있는 작지만 의욕이 넘치는 나라 니카라과, 엘 살바도르, 구아테말라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만일 이런 일이 미국에서 일어났다고 가정한다면, 미국인 백육십만 명이 4년간 폭력에 희생된 것과 같습니다.

친절을 전통으로 간직한 나라 칠레에서는 인구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백만 명이 조국을 떠나야 했습니다. 인구 이백 오십만을 지닌 작은 나라이지만 라틴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문명화된 나라로 여겨지던 우루구아이에서는 다섯 명당 한 명 꼴로 망명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엘살바도르 내전은 1979년 이후 거의 20분에 한 명 꼴로 피난을 가게 만들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강제로 이주했거나 망명한 사람들로만 나라 하나를 만든다면 그 나라는 노르웨이보다도 더 많은 인구를 가질 것입니다(SAL).

라틴 아메리카에서 발생한 정치적 폭력과 그로 인한 민중의 수난은 필설로 형용하기가 곤란할 정도다. 위에 언급된 사항들을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1970년 칠레에서는 인민연합의 사회주의자 살바도르 아옌데(Salvador Allende)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아옌데는 전반적인 개혁 정책을 단행했으나 과격한 개혁과 경제 침체로 국가가 혼란에 빠지고, 그 때까지 정치적 중립을 고수하던 군부는 1973년 9월 11일 쿠데타를 일으켜 대통령궁을 침공했다. 불길에 휩싸인 대통령궁에서 총을 들고 프로메테우스처럼 버티던 아옌데는 현장에서 즉사하고, 그의 죽음이 자살인지 타살인지는 의견이 분분하다.

‘수상하기 짝이 없지만 아직도 원인이 분명히 밝혀지지 않은 두 번의 비행기 사고’로 사망한 두 사람은 에쿠아도르의 하이메 롤도스 아킬레라(Jaime Roldós Aquilera)와 파나마의 오마르 토리호스 에레라(Omar Torrijos Herrera)다.

에쿠아도르에서는 1972년 2월에 쿠데타가 발생해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라라 장군이 집권했다. 군부는 아마존강 유역의 석유개발, 부채 해결, 국영석유공사 설립, 석유수출국기구 가입 등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1976년에는 민족주의적 혁명을 선언하고, 산업화와 생활조건 개선에 노력했으나 성공하지 못함으로써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기 위해 1978년 1월 국민투표로 새로운 헌법을 채택, 1979년 8월 법률가인 하이메 롤도스 아킬레라가 집권했다. 그는 과감한 농지개혁을 실행했으나, 경제상황의 악화로 혼란이 계속되었다. 1981년 5월, ‘위대한 마음을 지닌 지도자’ 롤도스 아킬레라는 의심스럽기 그지없는 비

행기 사고로 사망했다.

1968년 10월, 파나마. 집권한 지 불과 11일밖에 안 된 아르놀포 아리아스를 축출하고 군사 평의회를 결성한 민병대의 토리호스 에레라가 정국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가운데 1972년 데메뜨리오 라카스가 집권했다. 1972년에는 신헌법에 의해 민병대 사령관 토리호스에게 특권을 부여해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어나갔다. 1977년 미국의 카터 대통령과 신운하 조약을 체결해 1999년 12월 31일까지 파나마 운하를 미국과 파나마 양국이 공동관리하고, 그 후에는 파나마에 모든 권리를 완전히 이양하게 되었다. 그런데 ‘자기 민중의 존엄성을 복구시켰던 민주적인 군인’ 토리호스는 1981년 7월 원인 모를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

쿠데타를 통해 출현해 ‘라틴 아메리카에서 우리 시대 처음으로 민중을 말살시키고 있는 악마 같은 독재자’는 바로 아우구스토 삐노체트(Augusto Pinochet)다. 1973년 아옌데의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킨 삐노체트는 야만적인 행위를 통해 아옌데 추종자들을 체포, 경기장에 집어넣은 다음 대량으로 살해했다. 강제수용소로 보내진 사람도, 국외로 추방된 사람도 있었다. 해외에서 살해된 사람도 있었다. 삐노체트는 경제 살리기와, 민주주의 확립, 그리고 반공이라는 명분 하에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것이다.⁷⁾ 20세기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잔혹한 쿠데타로 불리는 폭거를 통해 집권함으로써 적어도 3,197명이 살해되고 1,00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체포 또는 고문을 당하거나 외국에 망명한 인사들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삐노체트를 소위 ‘인간 백정’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1976년, 정치적인 이유로 멕시코에 정착하게 된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삐노체트가 권좌에 머무는 한 소설을 출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기자·작가 정신을 되살려 5년 동안 언론 매체에 주로 정치적인 기사를 썼다. 이렇게 하는 것이 칠레의 군사 독재에 항거하는 가

7) 철저한 반공주의자인 삐노체트는 경제 발전을 통해 쿠데타의 정당성 획득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박정희와 유사하다. 그래서일까? 열렬한 박정희 숭배자였던 삐노체트는 유신헌법을 연구하기 위해 한국에 장성급 무관을 파견하기도 하고, 박정희 사망 시 전 관공서에 조기를 걸고 애도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장 효과적인 투쟁이라는 논리였다. 그 뒤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삐노체트 쿠데타를 피해 유럽으로 망명했다가 부유한 우루구아이 사업가로 변장한 채 칠레에 잠입, 쿠데타 세력이 통치하고 있는 음울하고 억압적인 칠레 현실을 필름에 담은 뒤 극적으로 탈출해 서구 세계에 알려진 영화감독 미겔 리턴의 구술을 토대로, 소설 같은 르뽀 『칠레에 잠입한 미겔 리턴의 모험』(*La aventura de Miguel Littín, clandestino en Chile*)를 쓰기도 했다. 현재 삐노체트는 칠레로 송환되어 자신의 죄과에 대한 법의 심판을 받고 있기도 하다.

1974년 7월 아르헨티나의 후안 빼론이 사망하자 부인이 대통령직을 계승했다. 테러 활동으로 사회가 극도로 혼란해졌고, 결국 1976년 3월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켜 비델라 장군이 1981년 3월까지 집권하고 이어 비올라로 대체된 군사정권은 다시 1982년 초에 갈띠에르 장군으로 교체되었다. 군부 집권 기간에 테러활동이 강화되어 진압과정에서 테러분자와 그 동조자들을 무자비하게 고문·처형하고, 수많은 실종자가 발생했는데, 군부의 이런 만행을 ‘더러운 전쟁(Guerra Sucia)’라 불렀다. 임신한 채 체포되어 아르헨티나 감옥에서 아기를 낳았던 수많은 여인들은 군부에 의해 비밀리에 입양되었거나 어느 고아원에 수용되었을 자기 아이들의 행방도, 얼굴도 모르는 일이 발생했던 것이다.⁸⁾

니카라구아, 엘 살바도르를 비롯한 수많은 나라에서는 여러 번의 내전이 발생해 무고한 인명이 엄청나게 희생되었으며, 현재도 콜롬비아를 비롯한 몇몇 나라에서는 내전 때문에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정치가 불안하고 민중의 삶이 고단하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땅, 유럽인들이 찾던 유토피아가 있을 것 같은 이 땅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일들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8) 아기를 못 낳는 중산층 여인이 입양한 딸이 군사독재정권에 희생된 사람의 아기였다는 역사적 사실을 형상화시킨 영화 ‘The Official Story’는 1976년 3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사 정권이 7년 동안 자행해 온 인권 탄압을 비롯해, 아르헨티나를 휩쓴 복잡한 정치적 문제와 그 안에서 피어난 인간애를 보여주고 있다. 1985년 칸느 영화제 최우수여우주연상 등 다수의 수상 경력을 지닌 이 영화는 우리 현대사의 아픈 상처인 ‘5월의 광주’를 떠올리게 한다.

III.3. 라틴 아메리카를 알리는 전통적 수단의 불충분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위에서 언급한 바대로, ‘독재자들의 어리석음과 광기’를 기반으로 ‘정치적 폭력과 그로 인한 민중의 수난’까지 겪게 된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을 심화시킨 내적인 요인들 가운데 라틴 아메리카를 알리는 전통적 수단의 불충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금년에 내가 스웨덴 한림원으로부터 주목을 받게 된 이유는 이런 엄청난 현실을 단지 문학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이 현실 자체 때문이라고 감히 생각해 봅니다. 이 현실은 종이 위에 씌어진 현실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자, 우리가 매일 겪는 무수한 죽음의 순간을 결정짓는 현실이고, 비애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고갈되지 않는 창작의 샘을 마르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샘물을 마시며 살아가는 이 향수병에 걸린, 방황하는 콜롬비아 인은 그저 운이 좋아 선택되었을 뿐인 또 하나의 보잘것없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폭과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현실에서 살아가는 시인과 거지들, 음악가와 예언자들, 전사(戰士)와 악당들을 비롯한 우리 모든 창조물들은 상상력에는 아주 조금밖에 의존하지 않아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당면해 왔던 커다란 난관은 바로 우리 삶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전통적인 수단의 불충분이기 때문입니다. 친구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닌 고독의 핵심입니다(SAL).

앞서 언급했다시피, 라틴 아메리카의 식민화는 기존 라틴 아메리카의 존재 기반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원주민 고유의 삶은,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1492년일 기점으로 제대로 표현되지 못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당시까지 원주민들의 언어로 표현되던 라틴 아메리카의 마술적 현실과 삶, 즉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전통적인 공간과 그 공간 안에서 축적된 시간은 스페인 사람들의 식민적 인식을 통해 스페인어로 표현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처하게 되었던 것이다. 어찌 보면, 스페인어는 라틴 아메리카의 모든 현실을 온전히 표현해 낼 수 없는 ‘절름발이 언어’일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폭과 깊이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자유분방한 현실’이기

때문에 특별한 상상력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삶을 믿게 만들 수 있는 전통적인 수단까지 불충분하기 때문에 상상의 세계를 표현할 엄두도 못 낸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다. 그에 관해 살펴해보도록 하자.

20세기 초 아마존 강 상류를 탐험하던 네덜란드 출신 탐험가 F.W. 업 드 그라프(Up de Graff)는 펄펄 끓는 물이 흐르는 개천 하나를 발견하고 달걀을 넣어 보았더니 채 5분도 안되어 달걀이 삶아져 버렸다고 했으며, 어느 지역을 지나가고 있을 때 큰 소리로 말을 하면 폭우가 쏟아지기 때문에 큰 소리로 말을 할 수도 없었다고 했다. 가르시아 마르케스 스스로 경험한 것도 대단히 특이하다.

콜롬비아 해안 지방에서 남자 하나가 병에 걸려 귀에 구더기가 득시글거리는 암소 한 마리를 앞에 놓고 비밀스런 주문을 외우고 있자 구더기들이 우수수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 남자는 동물의 상태에 대해 자기에게 설명해 주고 동물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기만 하면 멀리서도 같은 식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FCAALC)

말로 제대로 표현할 수조차 없는 현실이 문제다. 즉 라틴 아메리카의 엄청난 현실을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데 문제는 언어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든 예를 통해 살펴보자.

우리가 ‘tempestad’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유럽 사람들은 번개와 천둥으로 생각하지만, 그들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이해하는 문제는 쉽지 않다. ‘lluvia’라는 단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자비에르 마리미에르(Javier Marimier)라는 프랑스 사람이 자기 나라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위해 기술한 바에 따르면, 안데스 산맥에서는 5개월까지 지속되는 ‘tempestad’이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그 ‘tormenta’)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그 현상이 어찌나 사나운지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쉬지 않고 폭포처럼 빠른 속도로 번개가 치고, 계속해서 쳐대는 천둥으로 주변이 흔들릴 정도인데, 황하고 천둥

9) 스페인어 사전들에 실린 내용을 보면 ‘tormenta’는 ‘Perturbación atmosférica violenta acompañada de aparato eléctrico y viento fuerte, lluvia, nieve o granizo’라 규정되어 있고, ‘tempestad’은 ‘Tormenta grande con vientos de extraordinaria fuerza’라 규정되어 있다.

이 칠 때마다 그 거대한 산 속에 소리가 울려 퍼진다” 묘사가 대단히 잘 된 것은 아니나 절대 쉽사리 믿지 않는 유럽 사람들을 전율시킬 정도의 공포감을 조성하기에 충분할 것 같다(FCAALC).

따라서, 작가들은 이처럼 경이로운 라틴 아메리카 현실의 크기를 담아낼 수 있는 언어를 모색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 스페인어라는 대표 언어에 혼효(混淆)되어 있거나 라틴 아메리카에게 아직도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여러 토속 언어들까지 수용하려 노력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의 실험적 서사 양식을 구사하는 등, 나름대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해 오고 있다. 이는 B. W. 이페와 J. W. 버트도 동의하는 바다(2003, 374-375). 이페와 버트에 따르면, 라틴 아메리카의 일상적 삶의 범주는 서유럽이나 미국과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처럼 근본적인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자신들이 발견한 놀라운 신세계를 알기 쉽게 묘사할 수 없었던 최초의 스페인 연대기 작가들과 흡사한 상황에 처해 있던 라틴 아메리카 소설가들은 카리브 지역의 미신과 야만, 그리고 특이성에 초점을 맞추고 이 세계를 평범한 유럽적 경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것으로 그려냈다. 유럽적 문화와 사유의 피상적 합리주의와 이성주의는 인디오 문명이나 아프리카 문명의 타자성, 또는 납득할 수 없는 폭력과 복수로 점철된 토착 라틴 아메리카의 정치·사회적 삶의 투박한 비합리성, 비이성과 철저하게 대립되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접근의 결과가 종종 환상으로 읽히기도 하지만, 소설가들은 환상적 혹은 마술적 속성이란 라틴 아메리카의 일상 생활을 지배하는 요소라고 주장한다. 이페와 버트는, 최근 라틴 아메리카 소설이 초현실주의적인 미신과 환상 같은 것을 일상 속으로 투입시킴으로써 국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상당 부분 서구 문학이 보여주는 억제되고 비교적 제한된 개인적 비극에 싫증난 전세계 독자들에게 자극적인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독자들이 이제부터는 라틴 아메리카가 ‘비이성과 비합리가 지배하는 무의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4. 타인의 편향된 시각과 인식

하지만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을 심화시키는 요인을 찾는 문제는, 외부적인 요인들을 배제하고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 사실, 식민화 이후 라틴 아메리카는 오직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논리에 따라 자리매김되고, 그들의 오감과 언어를 통해서만 외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만일 이런 난관들이, 이 난관들의 본질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를 우둔하게 만든다면, 자신의 문화를 보면서 자아도취에 빠져 있는 서구의 이성적 재능이 우리를 해석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을 갖추지 못하게 되리라는 점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삶을 황폐화시키는 것들이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채, 또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일이, 그들에게도 그랬듯이, 너무나 아리고 피비린내 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지 않은 채, 그들이 자신들을 재는 동일한 잣대로 우리를 재겠다고 고집한다 해도 이해는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 현실을 타인의 방식으로 해석하는 행위는 갈수록 우리를 이해하기 어려운 존재로 만들고, 갈수록 우리를 덜 자유롭게 만들며, 갈수록 우리를 더 고독하게 만드는 데 이바지할 뿐입니다.

아마도, 만약 존경받는 유럽이 자신의 과거에 비추어 우리를 보려 노력한다면 타자로부터 더 많은 이해를 받을 것입니다. 런던이 첫 성벽을 건설하는 데 300년이란 세월이 걸렸으며 주교를 갖는 데 또 다른 300년이 걸렸고, 로마는 에트루리아의 왕이 자신의 나라를 인류 역사 속에 이식할 때까지 20세기 동안이나 불확실성의 암흑 속에서 투쟁했으며, 부드러운 치즈와 정확한 시계로 우리를 즐겁게 하는 오늘날의 평화 민족인 스위스인들은 16세기에 들어서서도 돈과 모험을 추구하는 용병이 되어 유럽을 피로 물들였습니다. 심지어는 르네상스가 절정에 달했을 때도 로마 제국 군대의 돈을 받고 고용된 12,000명의 독일 용병들이 로마를 약탈하고 유린했으며, 8천 명의 로마 주민들을 칼로 찔렀습니다(SAL).

사실 거대한 산, 강, 평원, 열대수림이 어우러진 자연에서 아스떼카, 마야, 잉카 등 찬란한 원주민 문명을 일구어 왔던 땅이 ‘라틴 아메리카’라 불리게 됨으로써 지니게 된 비극적 면모는 콜롬부스의 신대륙 ‘발견(descubrimiento)’이라는 말에서부터 파생되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니다. ‘발견하다(descubrir)’라는 동사는 ‘감추어져 있던’ 무엇을 드러낸다는 의미를 지니고, 그 ‘무엇’은 드러낸 자의 소유와 지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역설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구는 둥글다’고 믿던 콜롬부스는 카리브 해에 도착한 뒤 여성의 유방처럼 생긴 지구에서 카리브는 유두에 해당한다고 생각함으로써, 카리브를 여성화시켜 버렸고, 정복자는 ‘색을 탐하는 습성을 지닌다’는 속설을 뒷받침하듯 라틴 아메리카를 소유와 지배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이론적 배경을 제시해 주었다. 이제 유럽인들의 소유와 지배의 대상이 된 라틴 아메리카는 고유의 문화를 잃어버린 채 소유자와 지배자의 의도에 따라 존재하게 되어 버렸다. 이런 과정은 라틴 아메리카가 자신의 본모습을 세상에 드러낸 것이 아니라 본 모습이 덮어져 버리는 결과를 초래했던 것이다.

따라서, 유럽인들의 의도대로 만들어지고, 유럽인들의 눈과 생각을 통해서만 드러나는 라틴 아메리카의 고독은 ‘명민하고 사리판단이 바른’ 유럽인들이 자신들의 사고 방식을 수정하고 라틴 아메리카를 있는 그대로 수용할 때만 해소될 수 있다는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소위, 탈중심주의, 탈식민지주의적 논리는 타당해 보인다. 이제는 열대성 자유, 비이성, 비합리가 자연스럽게 수용되는 마술적인 세계, 이러한 것들이 행복한 삶을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 있는 세계인 라틴 아메리카 본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다.

IV. 라틴 아메리카의 미래: 새롭고 완전한 유토피아의 창조

본고를 통해 라틴 아메리카라고 하는 특정 지역의 다양한 사회·문화·역사적 콘텍스트를 가르시아 마르케스 특유의 방식으로 묘사해 놓은 연설문의 의미에 관해 역사·사회학적 접근법을 이용해 직접적인 방식의 해석을 가함으로써, 그 지역 현실이 지닌 다층적 구조에 관해 살펴보고, 더 나아가 연설문 작가의 개인적인 문학과 세계관을 엿보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가 라틴 아메리카

의 마술적 현실과 고독에 관한 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또한 충분히 수궁하면서 향후 더 진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아무튼, 카리브라는 경이적 현실이 만들어낸 작가 가르시아 마르케스는 라틴 아메리카의 실제 역사와 시적 환상이 마술적으로 융합·형상화되어 있는 소설들과 서구인들의 눈과 입을 통해 왜곡되어 있는 현실, 라틴 아메리카가 고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다양한 글들을 통해 라틴 아메리카의 지난한 삶의 정수를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삶을 위협하는 부조리한 요소들을 까발리고, 도덕적 분노를 표출하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다. 이는, 본 연설문에서도 잘 드러나 있다시피, 자유주의적 정치 성향을 지닌 외갓집에서 유년 시절을 보낸 덕분에,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와 그 삶을 제대로 보여주기 위한 치열한 작가 정신을 구축한 덕분에, 비폭력적 사회주의를 직·간접적으로 표방하면서, “문학은 저널리즘과의 사랑행위”라고 말할 만큼 다큐멘터리적 글쓰기에도 관심이 지대한 그이기에 가능한 일일 수도 있다.

그 동안 라틴 아메리카 인들은 억압, 수탈과 포기 앞에 지난한 삶과 더불어 맞서 왔다. 홍수나 페스트, 기아와 대격변, 심지어는 수세기 동안 지속된 영원한 전쟁도 죽음보다 우선하는 끈질긴 삶의 장점을 축소시킬 수는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 한편으로는 처절하고, 한편으로는 ‘유용성과 즐거움(útil y dulce)’을 추구하면서 지금도 ‘투쟁’ 강도를 낮추지 않고 있는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꿈꾸는 현실은, 본 연설문을 통해 그 스스로 밝힌 바처럼, 그 누구도 라틴 아메리카 인들의 삶과, 심지어는 죽음의 방식에 관해서도, 결정할 수 없는 곳이고, 행복이 진실로 가능한 곳이고, 백년의 고독을 선고받은 가족들이 마침내 그리고 영원히 이 지구상에서 제2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고독까지도 아름답고 정겹고 살가운, 삶의 새롭고 완전한 유토피아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Abstract

El 10 de diciembre de 1982, Gabriel García Márquez dio un discurso de aceptación del Premio Nóbel de Literatura: 'La soledad de América Latina'. A través de este discurso tan elocuente y metafórico, y al mismo tiempo, tan crítico, García Márquez habló al mundo, sobre todo, a los occidentales, del problema de la realidad mágica y la soledad de América Latina.

En América Latina han existido increíbles seres vivientes, y es natural que en ella haya surgido una tendencia literaria llamada el 'realismo mágico'. Debido a esta realidad, los europeos la tomaron a América Latina por un paraíso terrenal. Por fin, ella se convirtió en una colonia de los europeos, y de ahí que ocurrió el problema de soledad.

En algún sentido, los latinoamericanos no han tenido ni un instante de sosiego. Desde el año 1970, había 5 guerras y 17 golpes de estado. Mientras tanto 20 millones de niños menores de dos años han muerto; el número de los desaparecidos por motivos de la represión ha llegado casi a los 120 mil; por no querer que estas cosas siguieran así, han muerto unas 200 mil personas, etc.

La realidad histórica referida en este discurso no es fácil de captar, si se leen superficialmente sus 'significantes'. Por lo tanto, es necesario analizar e interpretarlos con detalle desde diferentes puntos de vista, y, en especial, se requiere el punto de vista socio-histórico si uno quiere conocer mejor la realidad y la soledad de América Latina. Por medio de este trabajo, podríamos atisbar la visión literaria y del mundo de Gabriel García Márquez.

Key Words : discurso, realidad, soledad, América Latina / 연설문, 현실, 고독, 라틴 아메리카

논문투고일자: 2004. 07. 25

심사완료일자: 2004. 08. 04

게재확정일자: 2004. 08. 16

참고문헌

- 강석영(1996), 『라틴아메리카사』 상, 하,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송병선 편역(1997), 『가르시아 마르케스』, 문학과 지성사.
- 존 H. 엘리엇 편집(2003), 『히스패닉 세계』, (김원중 외 옮김), 새물결.
- 카를로스 푸엔테스(1997), 『라틴 아메리카의 역사』, (서성철 옮김), 까치.
- 크리스토퍼 콜럼버스(2004), 『콜롬버스 항해록』, (이종훈 옮김), 서해문집.
- 폴 헤밀턴(1997), 『역사주의』, (임옥희 옮김), 동문선.
- García Marquez, Gabriel(1967), *Cien años de soledad*. Buenos Aires: Sudamericana.
- _____ (1967), *El otoño del partricarca*. Barcelona: Plaza & Janés.
- _____ (1986), *La aventura de Miguel Littín, clandestino en Chile*. Madrid: El País.
- _____ (1998), “Fantasía y creación artística en América Latina y el Caribe” (Publicado en Voces.) *Arte y literatura*, No. 2, Marzo.
- _____ (2002), *Vivir para contarla*. Barcelona: Modadori.
- Jaramillo Uribe, Jaime(Director Científico)(1984), *Manual de Historia de Colombia*, Tomo I, II, Bogotá: Procultura S.A.
- Palencia-Roth, Michael(1983), *Gabriel García Márquez*. Madrid: Editorial Gredos.